

어떻게 원한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

‘그는 나를 욕하며, 꾸짖었다. 그가 내 것을 빼앗아 가 승리했다.’ 이런 생각을 가슴에 담아 두면 그 원한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.

- 不遷怒 : 분노를 다른 곳에 옮기지 말고, 스스로 다스림으로써 해결하라는 뜻이다. 이처럼 속적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상대를 대하는가에 따라 小人도 되고 君子도 된다.